

# 숨가쁜 KIA 마운드 멧덴으로 한숨 돌렸다

복귀 후 구위 상승세... 후반기 4경기 등판 24이닝 책임져  
9월 한 달 30경기 강행군 로테이션 조정으로 헤쳐나가는



멧덴으로 한숨 돌린 KIA 타이거즈가 로테이션 조정으로 9월 강행군을 헤쳐나간다.

올 시즌 최소 경기타인 KIA는 9월 한 달 30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경기 수도 문제지만 지난 1일 두산전 포함 9월 한 달 4번의 더블헤더가 잡히면서 마운드가 가장 큰 고민이다. 특히 브룩스가 빠진 선발진 운영이 남은 시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닝' 고민 속에 영입한 새 외국인 선수 보다카 하시는 아직 합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다카하시는 4일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절차에 들어간다. 별 이상 없이 자가 격리가 끝난다고 해도 실전 준비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추석 이후 전력에 가세할 수 있다.

그나마 멧덴의 상승세가 KIA 마운드에 숨통을 트워줬다.

팔꿈치 부상으로 전반기 8경기 출전에 그쳤던 멧덴은 후반기에 4경기를 소화하면서 24이닝을 책임져줬다.

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KBO리그 입성 후 처음 7이닝까지 소화했다.

5회 1사까지 노히트노런 행진을 펼친 멧덴은 7이닝 2피안타 2사사구 2실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1-2로 뒤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팀의 역전승 발판을 마련하면서, 두산 유희관의 통산 100승 저지에 역할을 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직구 커맨드가 좋았다. 멧덴이 좋을 때 보면 투 스트라이크 이후 하이 패스트 볼이 좋은데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며 "슬라이더가 아직 낮게 제구되지 않고 있지만, 복귀 후 어제 모습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멧덴으로 마운드 중심을 잡은 KIA는 위기의 마운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임기영에게 하루 더 휴식을 주는 등 전력 최대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먼저 8월 26일 롯데전에 나왔던 이의리가 6일 휴식 뒤 2일 삼성전에 나섰고, 임기영은 하루 더 쉬고 4일 한화 원정경기에서 출격한다.

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선발 역할을 했던 윤중현은 원래 날짜대로 일요일 경기에서 다시 선발 임무를 맡게 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근 임기영의 커맨드가 조금 좋지 않아서 하루 더 휴식을 주려고 한다. 이의리도 하루 더 쉬고 등판하게 하는 등 마운드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테이션을 조정하면서 마운드 전력 최대화에 고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정이 만만치는 않다. KIA는 12일 NC전에 이어 15일 롯데전을 연달아 더블헤더로 치러야 한다.

그나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멈춰있던 퓨처스리그 선수단이 조금씩 움직이게 된 게 반갑다.

2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포수 이정훈과 함께 외야수 박정우가 엔트리에 합류했다. 또 3일부터 순차적으로 선수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면서 KIA는 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멧덴

##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하루 2억8천만원씩 벌었다 테니스 선수 수입 1위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최근 1년 사이에 9060만 달러(약 1048억원)의 수입을 올려 테니스 선수 중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일(한국시간) 최근 1년 사이의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을 조사해 상위 10명을 발표했다.

페더러는 경기에 출전해 번 상금은 60만 달러였지만 경기 외 수입이 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아 합계에서도 1위에 올랐다.

그는 무릎 부상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5개 대회에만 출전했고, 성적도 올해 Wimbledon 8강이 최고 성적이라 상금 액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후원 기업들과 계약 등으로 테니스 선수 수입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연간 수입이 1048억원이면 하루로 환산할 때 매일 2억8000만원씩 벌었다는 얘기다.

오사카 나옴이(일본)가 상금 510만 달러, 경기 외 수입 5500만 달러를 더해 601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역시 부상 때문에 많은 대회에 나오지 못해 상금은 180만 달러에 그쳤으나 경기 외 수입 4900만 달러를 앞세워 합계 4180만 달러로 3위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상금 800만 달러, 경기 외 수입 3000만 달러로 4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합계 2700만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전남 드래곤즈 '안방' K리그2 최고 경기장



전남드래곤즈의 '안방'이 4회 연속 최고의 경기장으로 뽑혔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 시즌 K리그2 13~24라운드까지 그라운드 관리상태와 각 구단의 마케팅 성과를 가지고 ▲그린 스타디움(Green Stadium)상 ▲팬 프렌들리 클럽(Fan-friendly Club)상 수상 구단을 선정했다.

2021시즌 2차 그린스타디움상은 광양축구전용구장을 홈으로 쓰는 전남에 돌아갔다.

K리그 경기감독관과 선수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광양축구전용구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광양축구전용구장은 POSCO 협력사 정원의 관리로 선수들에게 최적의 그라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은 4회 연속 그린스타디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2020시즌 3차부터, 종합상 그리고 올 시즌 1차에 이어 2차까지 그린스타디움상을 받았다.

한편 전남은 5일 경남에 이어 13일 대전 원정을 다녀온 뒤 오는 18일 그린스타디움에 빛나는 광양전용구장에서 부천FC와 홈경기를 갖는다.

미디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대전하나시티즌에 돌아갔다. 1차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대전은 2차 기간 한발종합운동장 고별 경기기념 레트로 유니폼 '한발 에디션'을 출시하는 등 팬 친화적인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한발 에디션' 유니폼은 출시된 지 2시간 30분 만에 300개 전량 완판되는 등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대전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구단·선수·팬이 '학대피해아동 지원 기금' 1000만원을 모금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2위에 오른 서울 이랜드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홈경기 전시회 '이웃에 영웅이 산다' 개최, 환경의 날 기념 다양한 친환경 이벤트, 프로스포츠 최초 VR영상 직업 교육 제공 등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3위 경남은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웹드라마 '버티고, 웃' 제작, 제1회 경남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등 팬 친화적 활동을 펼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오른쪽)가 2일 포르투갈 알가르브의 이스타디우 알가르브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아일랜드를 상대로 헤더슛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날두, 역대 A매치 최다 '111호 골'

머리로 2골 '왕' '왕'

포르투갈, 2-1 아일랜드 꺾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2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후반 막판 '극장 멀티 헤더골'을 터트리며 역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최다골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포르투갈은 2일(한국시간) 포르투갈 알가르브의 이스타디우 알가르브에서 열린 아일랜드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 A조 4차전 홈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4분부터 잇달아 터진

호날두의 동점골과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A조에서 최근 2연승에 4경기(3승 1무) 연속 무패(승점 10)를 이어간 포르투갈을 한 경기를 덜 치른 세르비아(승점 7)와 승점 차를 3으로 벌리며 선두 자리를 이어갔다.

호날두의 기막힌 헤더 능력이 불을 뿜은 경기였다. 포르투갈은 전반 10분께 아일랜드 골키퍼의 빌드업 패스를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유)가 가로채는 과정에서 태클을 당하면서 페널티킥을 따냈다.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반칙을 재확인했다.

호날두는 페널티킥 키퍼로 나섰다 아일랜드

골키퍼 개빈 바주누(포츠머스)의 빛나는 선방에 득점 기회를 날렸다.

포르투갈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선제골은 아일랜드의 몫이었다.아일랜드는 전반 45분 제이미 맥그래스(세인트 미렌)의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존 이건(세필드)이 머리로 볼의 방향을 바꿔 포르투갈 골그물을 흔들며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포르투갈은 후반에도 아일랜드의 수비진을 일방적으로 흔들었지만 상대의 육탄 방어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패색이 짙어졌다.

이때 '골잡이' 호날두가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의 안타까운 순간을 맞았던 호날두는 후반 44분 곤살로 게데스(발렌시아)

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으로 돌파하며 올린 크로스를 골지역 정면 부근에서 반짝 솟아올라 헤더로 천금의 동점골을 뽑아냈다.

호날두의 A매치 110호골이었다.

지난 6월 24일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어 A매치 109호골을 기록,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A매치 109골)가 보유했던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호날두는 'A매치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 됐다.

호날두는 후반 추가시간 주앙 마리우(벤피카)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자 자신의 A매치 최다골을 111호골로 늘리면서 포르투갈의 2-1 역전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호날두는 유니폼 상의를 벗고 전매특허인 '호우 세리머니'를 펼치며 승리의 기쁨을 열로카드와 바꿨다.

/연합뉴스